



< 요약 >

I. '15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 2분기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6.9% 하락· 수출물량은 다소 회복

-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9% 하락한 1,356억 달러 기록
- 1분기부터 이어진 유가하락 및 석유화학 시설 보수 영향으로 관련 제품의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으나, 2분기 유가 반등, 석유화학 시설 보수 종료 등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 감소폭 완화

※ 유가(WTI, \$/bl) 추이(기간평균) :

97.5('14.3/4) → 73.5(4/4) → 48.6('15.1/4) → 57.8(2/4)

- 수출 물가는 여전히 하향하는 가운데 수출 물량이 회복되면서 수출액 감소폭을 축소한 것으로 분석

□ 2분기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는 수출물량·채산성 개선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3p 상승한 93 기록

- 2분기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원화기준) 상승 영향으로 전기(90)보다 개선된 94 기록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 평가지수		89	99	95	94	96	94	94	95	90	93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86	98	94	93	96	88	90	98	90	94
수출단가 평가지수		94	97	94	93	97	85	90	98	91	97
생산원가 평가지수		106	104	102	102	107	102	101	102	99	103
수출물량 평가지수		91	105	100	102	95	104	98	97	90	96
수출계약 평가지수		91	105	101	102	96	103	97	96	89	96
자금사정 평가지수		98	102	100	99	100	97	93	98	93	96

- 산업별로는 철강·기계류·자동차·조선·섬유류 등 대부분의 산업  
업황이 개선된 반면, 석유화학·전기전자는 악화 또는 보합
- 석유화학의 경우 하락된 유가로 인한 단가 인하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전기전자는 경기회복 둔화로 판매량 감소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산업	석유 화학	철강· 비철금속	전기 전자	기계류	자동차	조선	섬유류	플랜트· 해외건설
'15년 1분기	91	82	96	87	90	86	84	88
2분기	81	89	96	95	98	100	94	101

## II. '15년 3분기 수출 전망

□ 3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8.4% 하락, 전기대비 1.1% 상승

- '15년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기대비 1.1% 상승했으나,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8.4% 기록

※ 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1('14.4/4) → Δ2.8('15.1/4) → Δ9.5(2/4) → Δ8.4(3/4)

※ 선행지수 전기대비 증가율(%)

: 1.3('14.4/4) → Δ5.2('15.1/4) → Δ5.6(2/4) → 1.1(3/4)

□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세 둔화 및 원화가치 상승 지속, 수출물  
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부진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전망 : 미국 경기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  
브라질 등 개도국은 경기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유럽 등 선진  
국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대상국 경기는 소폭 상승 전망

- 경기 상승 영향으로 인한 수출 주문 확대에 수출용 원자재 수  
입액 지수도 전기대비 상승

※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지수 (2010=100)

: 140.95('14. 3/4) → 119.35(4/4) → 85.56('15. 1/4) → 90.92(2/4)

○ **가격경쟁력** : 원/달러 환율이 1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함에 따라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해 가격경쟁력은 하락

※ 원/달러환율 : 1,112.6('15년 3월) → 1,088.7(4월) → 1,091.3(5월) → 1,112.2(6월)

※ 원화 실질실효환율 : 113.5('15. 2월) → 113.5(3월) → 115.7(4월) → 114.3(5월)

- **수출물가** : 유가 안정으로 인한 석유 및 화학제품 가격은 5월 이후 반등했으나,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제1차 금속제품 등의 단가 하락세는 지속

※ 수출물가지수 전월대비 등락률(%)

: 1.3('15.2월) → 0.9(3월) → △1.8(4월) → 1.0(5월)

○ **주요 산업** : 반도체 및 IT 산업은 수주/출하 비율이 2분기 연속 1.0을 상회하며 안정세를 유지, 선박수출도 인도예정 물량의 증가로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계수주는 부진 지속

□ '15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 내외 하락 전망

○ 3분기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수출선행지수가 전분기대비 1.1% 상승하고 전년동기대비 하락률도 축소됨에 따라, 전분기의 수출액 감소율(전년동기대비 6.9%↓)보다는 하락폭이 축소된 전년동기대비 3% 내외 하락 전망

<수출선행지수 추이>

분기별	2013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선행지수	116.3	120.8	120.7	125.2	124.6	126.4	126.3	127.9	121.2	114.4	115.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6	3.5	1.6	11.3	7.2	4.6	4.6	2.1	-2.8	-9.5	-8.4
전기대비 증감률(%)	3.3	3.9	-0.1	3.7	-0.4	1.4	-0.1	1.3	-5.2	-5.6	1.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4.5	0.9	-1.9	9.6	-4.1	-2.6	0.0	-2.5	-4.9	-6.7	1.0

주 : 2015년 2분기 이후 수출선행지수 산출 모형을 변경함에 따라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변경됨.

###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2분기 중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원화환율 불안정(46.5%),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4.7%) 및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27.5%)가 꼽힘.
- 대기업은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8.6%)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중소기업은 원화환율 불안정(45.8%)을 가장 많이 응답
- 산업별로는 원화환율 불안정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산업은 자동차(60.9%), 기계류(57.9%), 전기전자(51.4%), 철강 및 비철금속(50.0%)
-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를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은 선박(64.7%), 섬유류(51.4%), 전기전자(49.5%) 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 둔화는 플랜트·해외건설(41.7%) 산업에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I. '15년 2분기 수출 실적 평가

##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 2분기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6.9% 하락· 수출물량은 다소 회복

-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9% 하락한 1,356억 달러 기록
  - 4월(8.0%↓) 및 5월(10.9%↓)의 수출 부진이 이어져 1분기(3.0%↓)에 비해 하락폭은 확대되었으나, 수출 환경 일부 개선으로 6월(1.8%↓) 수출 하락폭은 축소
- 1분기부터 이어진 유가하락 및 석유화학 시설 보수 영향으로 관련 제품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으나, 2분기 유가 반등, 석유화학 시설 보수 종료 등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 감소폭은 완화

※ 유가(WTI, \$/bl) 추이(기간평균) :

97.5('14.3/4) → 73.5(4/4) → 48.6('15.1/4) → 57.8(2/4)

###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1/A	2/A	3/A	4/A	1/A	2/A	3/A	4/A	1/A	2/A*
수출액	1,353	1,412	1,368	1,464	1,375	1,457	1,418	1,477	1,335	<b>1,356</b>
증가율 (%)	0.3	0.7	2.8	4.7	1.6	3.2	3.6	0.9	-3.0	<b>-6.9</b>
수출물가지수	100.0	98.4	98.7	98.8	98.1	98.0	98.1	93.1	87.9	<b>88.4</b>
증가율 (%)	-2.5	-2.1	-0.8	-0.5	-1.9	-0.4	-0.6	-5.7	-10.4	<b>-9.8</b>
수입물가지수	110.8	107.0	107.7	108.2	107.8	107.8	106.0	95.8	85.8	<b>86.0</b>
증가율 (%)	-6.1	-5.6	-4.0	-2.7	-2.7	0.8	-1.6	-11.5	-20.4	<b>-20.3</b>
수출물량지수	120.5	127.3	124.0	132.3	125.9	131.3	129.5	139.3	129.4	<b>134.5</b>
증가율 (%)	5.8	6.0	2.3	5.1	4.5	3.1	4.4	5.3	2.8	<b>6.9</b>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주1: 수출액은 억달러,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입물가지수는 달러화 기준 (2010=100)

주\*: 2/4분기는 수출액 4~6월, 그 외 지수 4~5월 수치로 집계

○ 지역별로는 미국, 중남미 수출은 6월 이후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력시장으로 수출 감소는 지속

-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로 수입이 둔화되면서 대중 수출 하락은 지속됐으며, 대일수출도 엔저 영향으로 감소세 유지

- ※ 대중 수출증가율(%) :  $\Delta 7.7(2월) \rightarrow \Delta 2.6(3월) \rightarrow \Delta 5.1(4월) \rightarrow \Delta 3.3(5월) \rightarrow 0.8(6월)$
- ※ 대일 수출증가율(%) :  $\Delta 23.3(2월) \rightarrow \Delta 23.5(3월) \rightarrow \Delta 12.4(4월) \rightarrow \Delta 13.5(5월) \rightarrow \Delta 12.7(6월)$
- ※ 대미 수출증가율(%) :  $7.7(2월) \rightarrow 16.8(3월) \rightarrow \Delta 2.6(4월) \rightarrow \Delta 7.2(5월) \rightarrow 10.9(6월)$
- ※ 대EU 수출증가율(%) :  $\Delta 31.3(2월) \rightarrow \Delta 9.8(3월) \rightarrow \Delta 11.9(4월) \rightarrow \Delta 9.0(5월) \rightarrow \Delta 4.3(6월)$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석유화학은 낮은 수준을 유지한 유가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반도체는 호조세를 유지했고 자동차는 6월 이후 신차 수출 영향으로 증가 전환

- ※ 석유화학 수출증가율(%) :  $\Delta 24.0(2월) \rightarrow \Delta 16.3(3월) \rightarrow \Delta 19.5(4월) \rightarrow \Delta 21.2(5월) \rightarrow \Delta 12.8(6월)$
- ※ 자동차 수출증가율(%) :  $\Delta 15.8(2월) \rightarrow \Delta 6.8(3월) \rightarrow \Delta 8.2(4월) \rightarrow \Delta 7.9(5월) \rightarrow \Delta 6.5(6월)$
- ※ 반도체 수출증가율(%) :  $6.4(2월) \rightarrow 2.9(3월) \rightarrow 6.9(4월) \rightarrow 4.3(5월) \rightarrow 3.4(6월)$

○ 수출물가는 하향세를 유지했으나, 일부 품목에서 수출물량이 회복되면서 전체 수출액 감소폭은 축소

- 수출물가지수(달러화기준)는 전년동기대비 9.8% 하락했으나, 2분기 중반 이후 유가가 인상되면서 관련 제품 수출가격 상승효과가 반영돼 1분기에 비해 증가율이 0.5p 상승

- 수출물량지수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6.9%, 전기에 비해서도 3.9% 상승

□ 원자재·중간재 수입물가 하락 심화로 수출채산성은 상승

○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는 전년동기대비 4.5% 하락했으나 전기에 비해 하락률을 축소한 반면,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는 15.5% 하락하는 등 하락폭 심화로 수출채산성은 상승

- ※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 :  $87.0('14.3/4) \rightarrow 87.5(4/4) \rightarrow 83.6('15.1/4) \rightarrow 83.4(4\sim 5월)$
- ※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  $94.1('14.3/4) \rightarrow 89.9(4/4) \rightarrow 81.6('15.1/4) \rightarrow 81.1(4\sim 5월)$

- 특히 원자재 수입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2.5% 하락한 75.0, 중간재 수입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8.5% 하락한 80.1로 수출용 수입물가의 안정 하향세 지속

※ 원자재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 106.5('14.3/4)→93.4(4/4)→75.4('15.1/4)→75.0(4~5월)

※ 중간재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 86.9('14.3/4)→85.9(4/4)→80.6('15.1/4)→80.1(4~5월)

##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수출물량·채산성 개선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3p 상승한 93 기록

○ 2분기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원화기준) 상승 영향으로 전기(90)보다 개선된 94를 기록

- 수출단가(원화기준) 평가지수(91 → 97)는 원/달러 환율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단가상승 압력 증가로 상승세를 나타냄

※ 원/달러환율 : 1,112.6('15년 3월) → 1,088.7(4월) → 1,091.3(5월) → 1,112.2(6월)

- 생산원가 평가지수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기(99)보다 상승한 103을 기록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 평가지수	89	99	95	94	96	94	94	95	90	93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86	98	94	93	96	88	90	98	90	94
수출단가 평가지수	94	97	94	93	97	85	90	98	91	97
생산원가 평가지수	106	104	102	102	107	102	101	102	99	103
수출물량 평가지수	91	105	100	102	95	104	98	97	90	96
수출계약 평가지수	91	105	101	102	96	103	97	96	89	96
자금사정 평가지수	98	102	100	99	100	97	93	98	93	96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기(90)보다 상승한 96을 기록, 2분기 중 수출기업의 실적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계약 평가지수도 전기(89)보다 개선된 96을 기록하여 수출업체들의 계약 성사 건 수가 전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출실적 회복 기대
- 자금사정 평가지수(93 → 96)도 3p 상승하여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자금사정 평가지수가 5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양상을 보여 수출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장기화 우려

<2015년 1분기, 2분기 수출업황, 수출채산성, 수출물량 평가지수>

구	분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물량 평가지수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규모	대기업	94	98	95	100	93	104
	중소기업	89	91	88	91	88	93
산업	석유화학	91	98	89	102	88	99
	철강·비철금속	82	81	83	83	82	85
	전기전자	96	95	97	94	93	95
	기계류	87	89	85	88	89	91
	자동차	90	94	90	101	90	98
	선박	86	90	92	87	97	90
	섬유류	84	101	86	97	90	101
	플랜트·해외건설	88	99	89	103	89	113
수출지역	미국(북미)	94	97	94	97	98	101
	중국	94	93	93	97	88	95
	일본	83	88	77	84	74	92
	유로존	80	92	84	91	84	94
	동남아	90	87	90	92	91	93
	중남미	94	83	83	117	72	117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업황 평가지수가 각각 전년대비 4p, 2p 상승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중소기업(88 → 91)보다 대기업(95 → 100)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대기업의 업황개선이 더 높음.
  - 수출물량 평가지수도 대기업(93 → 104)이 중소기업(88 → 93)보다 크게 상승해 수출물량 개선
-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철강·비철금속과 전기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승
  - 산업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석유화학, 자동차, 플랜트·해외건설, 섬유류, 기계류 등에서 상승하며 채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전기전자, 선박은 하락
  - 산업별 수출물량 평가지수 역시 석유화학, 자동차, 플랜트·해외건설, 섬유류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선박에서 하락
- 수출지역별 업황 평가지수는 미국, 일본, 유럽 지역에서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했고, 중국, 동남아, 중남미는 감소세를 나타냄.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 지역에서 개선되었고, 특히 중남미 지역(83 → 117)에서 큰 폭 증가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평가지수 역시 전 지역에서 개선되었고 특히 미국(98 → 101)과 중남미 지역(72 → 117)에서 기준치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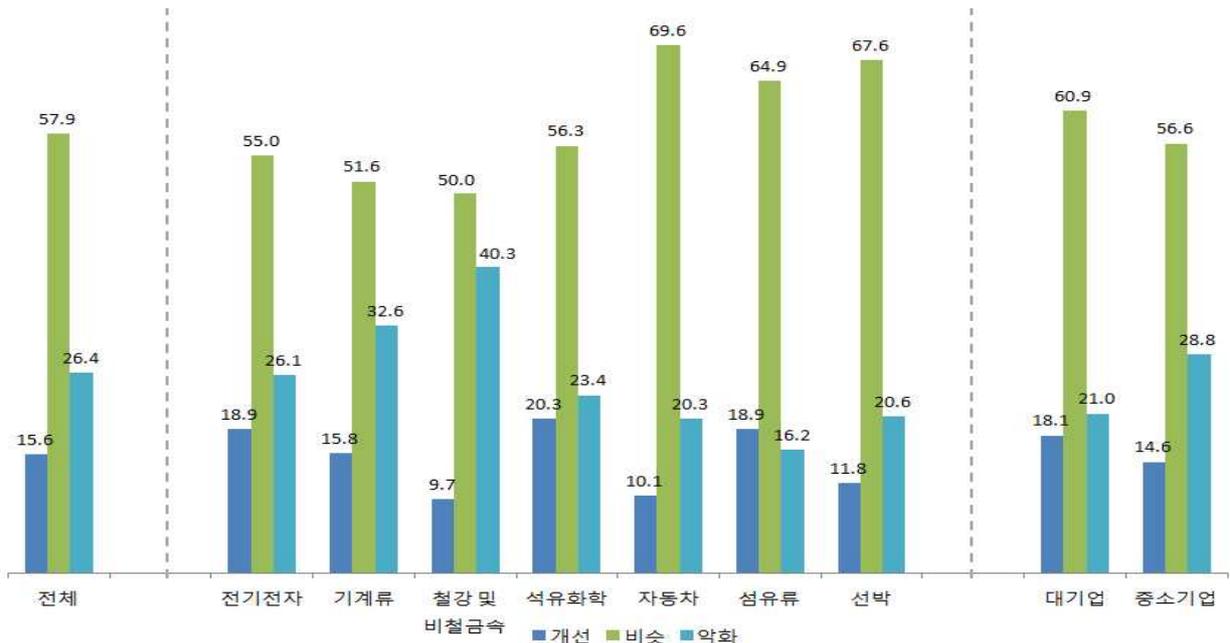
### 3. 수출업황 개선 및 악화 원인

- 2분기 중 수출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기업 중 15.6%이며,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26.4%

- 전기(개선 13.5%, 악화 29.1%)에 비해 수출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증가하고,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감소
  - 나머지 57.9%는 수출업황이 '15년 1분기와 비슷하다고 답하였으며, 전기(57.4%)에 비해 그 비중이 소폭 증가
-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업황이 악화된 기업 비중이 높은 것(28.8%)으로 파악됨
  - 대기업의 경우에는 21.0%의 기업이 전기보다 업황 악화 응답
- 산업별로 보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철강 및 비철금속, 기계류 산업에서 업황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섬유류, 자동차, 플랜트·해외건설 산업은 업황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2015년 2분기 수출기업 업황 개선 및 악화 분포>

(총 기업 수 45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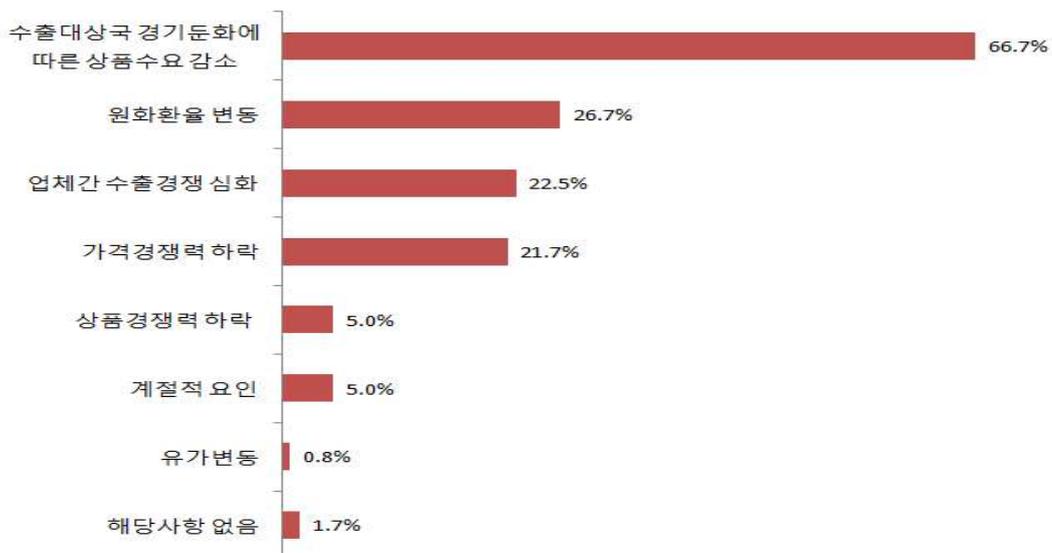
- 수출업황이 악화된 기업들은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수출 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66.7%)와 원화환율 변동

(26.7%)을 들고 있음(복수응답)

- 최근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중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기업 가운데 74%의 기업이 업황 악화의 원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를 응답
  - 반면, 미국(53.8%)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원화환율 변동성을 수출업황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기업의 26.7%지만, 대기업의 응답비율은 6.9%로 낮은 반면 중소기업의 응답비율은 33.0%로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은 환리스크 대응 방안을 갖춘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이 부족해 나타난 차이로 분석

### <2015년 2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업황 악화 기업 수 120)



- 산업별로는 전기전자(79.3%), 철강 및 비철금속(79.3%), 섬유류 산업(100.0%)에서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에 높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
  - 전기전자 및 섬유류는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판매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철강 및 비철금속 역시 중국 경기 둔화에 의한 수출 감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원화환율 변동성을 수출업황 악화의 주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산업은 문화콘텐츠(66.7%), 석유화학(40.0%), 자동차(35.7%)
- 지역별로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47.4%)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기업규모, 산업, 수출지역별 2015년 2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구	분	상품 경쟁력 하락	가격 경쟁력 하락	수출대상국 경기악화	업 체 간 수출경쟁 심화	원화 환율 변동	기 타
규모	대 기업	3.4	34.5	62.1	31.0	6.9	6.9
	중 소 기업	5.5	17.6	68.1	19.8	33.0	7.7
산업	전기전자	13.8	17.2	79.3	17.2	31.0	3.4
	기계류	3.2	25.8	54.8	12.9	35.5	6.5
	철강·비철금속	0.0	17.2	79.3	31.0	20.7	0.0
	석유정제/화학	0.0	26.7	60.0	20.0	40.0	13.3
	자동차	0.0	28.6	50.0	7.1	35.7	7.1
	섬유류	0.0	0.0	100.0	16.7	16.7	33.3
	플랜트·해외건설	0.0	0.0	71.4	57.1	14.3	0.0
	선박	0.0	28.6	28.6	14.3	14.3	28.6
	문화콘텐츠	33.3	0.0	66.7	33.3	66.7	0.0
수출지역	미국(북미)	7.7	19.2	53.8	11.5	30.8	7.7
	중국	3.7	25.9	74.1	29.6	14.8	0.0
	일본	0.0	21.1	57.9	21.1	47.4	0.0
	유로존	6.3	18.8	68.8	12.5	25.0	18.8
	동남아	11.1	33.3	66.7	27.8	22.2	11.1
	중남미	0.0	0.0	100.0	10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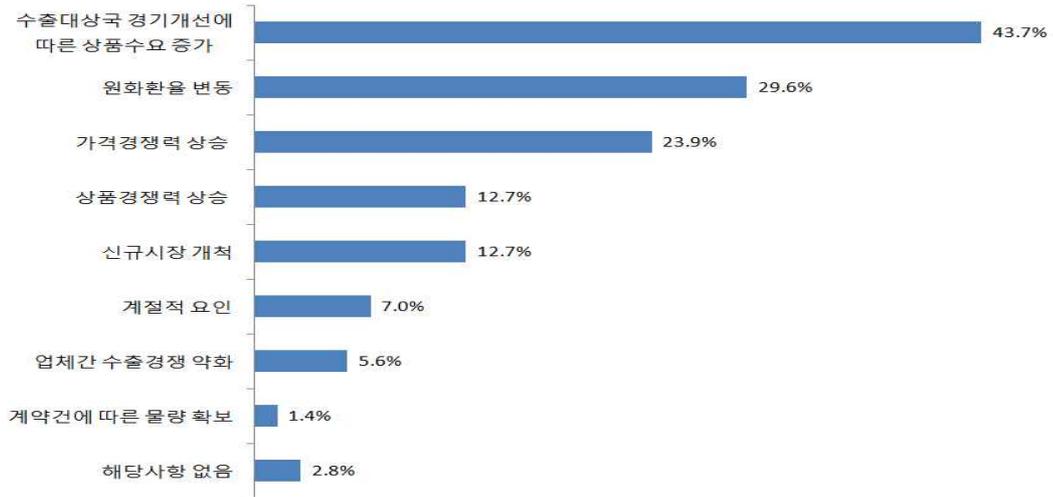
- 수출업황이 개선된 기업의 경우 개선 요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43.7%)와 원화환율 변동(29.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복수응답)

- 수출업황 개선 기업 중 수출대상국 경기회복을 개선 요인으로 답한 기업의 경우 주요 수출지역이 동남아(66.7%), 일본(57.1%), 유로지역(55.6%) 등으로 나타남.

- 수출업황이 악화된 기업도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을 악화 원인으로 들고 있어,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회복 여부가 수출업황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15년 2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업황 개선 기업 수 71)



<기업규모, 산업, 수출지역별 2015년 2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구분	상품 경쟁력 상승	가격 경쟁력 상승	수출 대상국 경기개선	업체간 수출경쟁 약화	원화 환율 변동	기타
규모						
대기업	4.0	36.0	44.0	0.0	12.0	20.0
중소기업	17.4	17.4	43.5	8.7	39.1	26.1
산업						
석유화학	15.4	38.5	46.2	23.1	23.1	0.0
철강 및 비철금속	14.3	28.6	42.9	0.0	57.1	14.3
전기전자	19.0	19.0	38.1	4.8	28.6	33.3
기계류	6.7	6.7	73.3	0.0	20.0	13.3
자동차	0.0	14.3	57.1	0.0	28.6	28.6
선박	25.0	25.0	50.0	0.0	75.0	0.0
섬유류	0.0	57.1	42.9	0.0	42.9	28.6
플랜트·해외건설	14.3	14.3	57.1	0.0	0.0	28.6
수출지역						
미국(북미)	5.3	42.1	31.6	10.5	31.6	31.6
중국	15.8	31.6	36.8	5.3	31.6	10.5
일본	14.3	0.0	57.1	0.0	14.3	42.9
유로존	22.2	22.2	55.6	0.0	55.6	0.0
동남아	16.7	16.7	66.7	0.0	33.3	16.7

- 산업별로는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를 주요 개선 요인으로 꼽은 산업은 기계류(73.3%), 자동차(57.1%), 플랜트·해외 건설(57.1%)
- 원화환율 변동을 개선 요인으로 응답한 산업은 선박(75.0%)과 철강 및 비철금속(57.1%)
- 섬유류(57.1%) 및 석유화학(38.5%)의 경우에는 가격경쟁력 상승이 다른 산업에 비해 업황 개선에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II. '15년 3분기 수출 전망

### 1. 수출선행지수 추이

□ 3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8.4% 하락, 전기대비 1.1% 상승

- '15년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기대비 1.1% 상승했으나,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8.4% 기록

※ 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1('14.4/4) → △2.8('15.1/4) → △9.5(2/4) → △8.4(3/4)

※ 선행지수 전기대비 증가율(%)

: 1.3('14.4/4) → △5.2('15.1/4) → △5.6(2/4) → 1.1(3/4)

#### <수출선행지수 추이>

분기별	2013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선행지수	116.3	120.8	120.7	125.2	124.6	126.4	126.3	127.9	121.2	114.4	115.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6	3.5	1.6	11.3	7.2	4.6	4.6	2.1	-2.8	-9.5	-8.4
전기대비 증감률(%)	3.3	3.9	-0.1	3.7	-0.4	1.4	-0.1	1.3	-5.2	-5.6	1.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4.5	0.9	-1.9	9.6	-4.1	-2.6	0.0	-2.5	-4.9	-6.7	1.0

주 : 2015년 2분기 이후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을 변경함에 따라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변경됨.

○ 그러나 수출선행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 4분기만에 반등해 수출 경기 하락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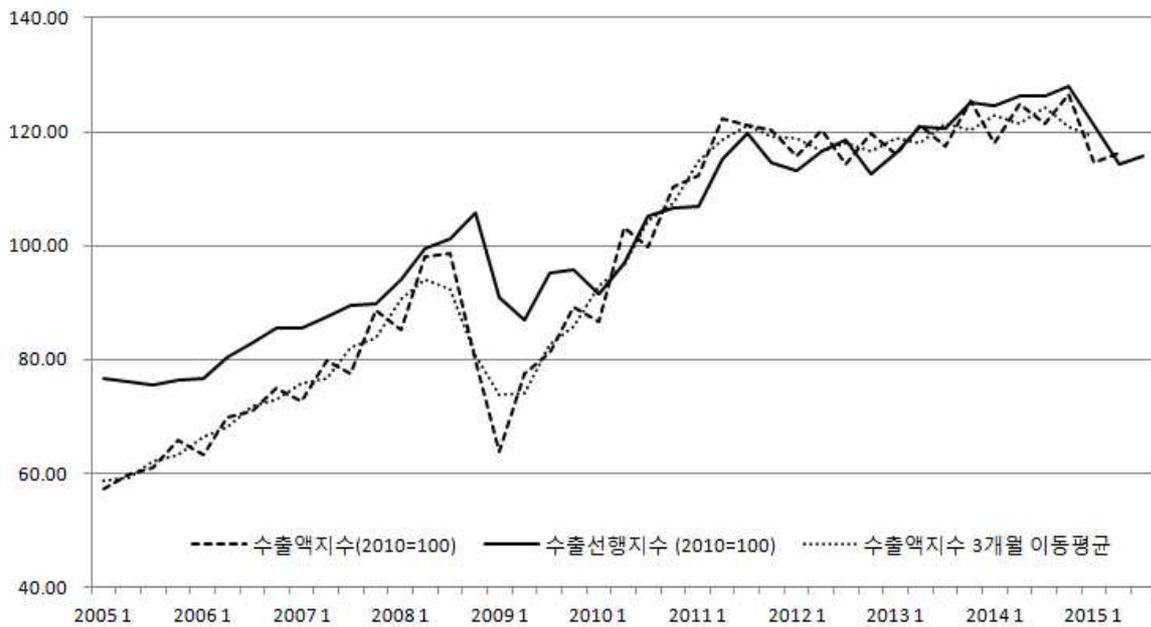
※ 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 차(%p)

:  $\Delta 2.5(14.4/4) \rightarrow \Delta 4.9(15.1/4) \rightarrow \Delta 6.7(2/4) \rightarrow 1.0(3/4)$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실적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지수 추이>



□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세 둔화 및 원화가치 상승 지속, 수출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부진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전망 : 미국 경기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브라질 등 개도국은 경기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유럽 등 선진국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대상국 경기는 소폭 상승 전망

- 경기 상승 영향으로 인한 수출 주문 확대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 지수도 전기대비 상승

※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지수 (2010=100)

: 140.95('14. 3/4) → 119.35(4/4) → 85.56('15. 1/4) → **90.92(2/4)**

○ 가격경쟁력 : 원/달러 환율이 1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함에 따라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해 가격경쟁력은 하락

※ 원/달러환율(평균) : 1,112.6('15. 3월) → 1,088.7(4월) → 1,091.3(5월) → 1,112.2(6월)

※ 원화 실질실효환율 : 113.5('15. 2월) → 113.5(3월) → 115.7(4월) → 114.3(5월)

- 실질실효환율\* : 엔화와 위안화, 유로화 가치 절하 영향으로 4월 원화의 실질실효환율(115.7)은 2008년 2월(118.79) 이후 7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실질실효환율 : 교역상대국의 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한 뒤 물가변동을 감안해 산출하는 지표로, 2010년=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통화가치 고평가를, 100 이하면 통화가치 저평가를 나타냄.

- 수출물가 : 유가 안정으로 인한 석유 및 화학제품 가격은 4월 이후 반등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제1차 금속제품 가격 하락세도 지속, 일반기계·수송장비·전기 및 전자기기는 5월 이후 반등

※ 수출물가지수 전월대비 등락률(%)

: 1.3('15.2월) → 0.9(3월) → △1.8(4월) → 1.0(5월)

※ 수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등락률(%)

: △8.1('15.2월) → △6.8(3월) → △6.0(4월) → △3.5(5월)

○ 주요 산업 : 반도체 및 IT 산업은 수주/출하 비율이 2분기 연속

1.0을 상회하며 안정세를 유지, 선박수출도 인도예정 물량의 증가로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기계수주는 부진 지속

□ '15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 하락 전망

- 3분기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수출선행지수가 전분기대비 1.1% 상승하고 전년동기대비 하락률도 축소됨에 따라, 전분기의 수출액 감소율(전년동기대비 6.9%↓)보다는 하락폭이 축소된 전년동기대비 3% 내외 하락 전망
- 5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수출 물량 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경우 하락폭은 축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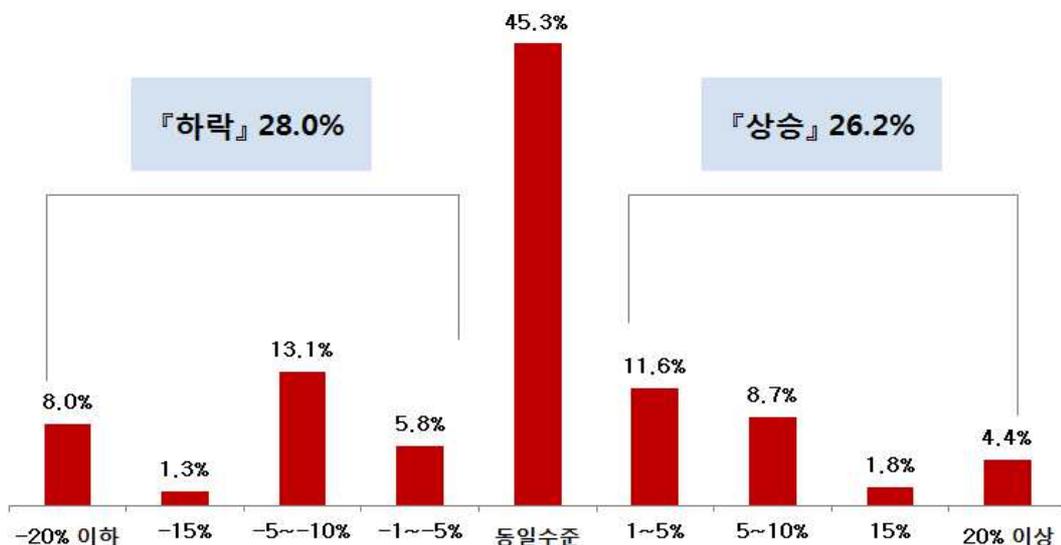
2. 수출기업 수출 목표치 전망

□ 수출기업 3분기 수출증가율 목표치는 전년동기대비 1.03%

- 수출기업 응답률로는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더 높음.
- 수출기업 가운데 26.2%가 3분기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28.0%는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

<전년동기대비 2015년 3분기 예상 수출액 증감률>

(총 기업 수 454)



- 목표 수출증가율의 분포는 전년동기와 동일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이 45.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년동기대비 5~10% 감소를 전망한 기업이 13.1%, 1~5% 증가를 전망한 기업이 11.6%, 5~10% 증가를 전망한 기업이 8.7% 순
-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도 8.0% 존재
- 그러나 수출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더 높음.
  - 대기업은 3분기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4%, 감소 전망 비율은 22.8%
  - 반면 중소기업은 증가 전망 비율이 23.9%, 감소 전망 비율이 30.6%로 하락이 우세
- 이에 따라 전체 기업 응답률로는 하락 전망 비율이 높지만, 수출 실적별 가중 합산한 수출액 목표치는 1.03% 증가할 것으로 집계
- 산업별로는 녹색산업, 섬유류, 플랜트·해외건설, 기계류 제외한 전산업에서 전년동기대비 수출 하락 전망
- 전체 산업 가운데 석유화학(-6.3%), 전기전자(-5.5%), 문화콘텐츠(-5.2%),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2.8%)에서 전년동기대비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의 경우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는 있으나 하락된 유가로 인한 단가 인하 영향이 3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철강 및 비철금속은 세계시장 공급과잉으로 수출감소 지속 전망
- 반면 녹색산업(7.5%), 섬유류(3.7%), 플랜트·해외건설(3.6%) 산업에서는 전년동기에 비해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산업별 전년동기대비 2015년 3분기 예상 수출액 증감률>

단위 %

구 분	-20% 이하	-15%	-10%	-5%	0%	1% ~5%	7% ~10%	15%	20% 이상	평균
전 기 전 자	10.8	2.7	11.7	5.4	41.4	13.5	7.2	2.7	4.5	-5.52
기 계 류	12.8	0.0	14.9	4.3	42.6	8.5	8.5	1.1	7.4	2.90
철강 및 비철금속	10.0	4.3	14.3	5.7	44.3	8.6	8.6	1.4	2.9	-2.08
석 유 화 학	4.7	0.0	18.8	9.4	40.6	14.1	9.4	3.1	0.0	-6.26
자 동 차	5.8	1.4	7.2	7.2	52.2	14.5	4.3	2.9	4.3	-0.12
섬 유 류	2.7	0.0	13.5	5.4	48.6	10.8	16.2	0.0	2.7	3.71
플랜트·해외건설	5.7	0.0	5.7	2.9	54.3	11.4	14.3	2.9	2.9	3.59
녹 색	0.0	0.0	4.5	9.1	50.0	22.7	0.0	0.0	13.6	7.50
선 박	6.3	0.0	15.6	0.0	59.4	6.3	0.0	0.0	12.5	-0.89
문 화 컨 텐 츠	16.7	0.0	16.7	8.3	50.0	0.0	8.3	0.0	0.0	-5.24
해 운	0.0	0.0	0.0	0.0	62.5	25.0	12.5	0.0	0.0	0.93

□ 수출지역별로는 일본(-6.3%), 유로존(-4.9%), 동남아(-4.4%), 중남미(-4.3%) 등에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중국(3.1%), 미국(1.0%)에 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미국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이며, 동남아의 경우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수출 비중이 높아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측

<수출지역별 전년동기대비 2015년 3분기 예상 수출액 증감률>

(단위 %)

구 분	-20% 이하	-15%	-10%	-5%	0%	1% ~5%	7% ~10%	15%	20% 이상	평균
미국(북미)	4.6	1.5	9.2	6.9	47.3	11.5	11.5	1.5	6.1	1.03
중 국	9.3	0.0	12.4	3.1	47.4	15.5	6.2	1.0	5.2	3.06
일 본	5.2	3.4	24.1	8.6	39.7	5.2	8.6	1.7	3.4	-6.26
유 로 존	13.0	1.9	9.3	1.9	44.4	16.7	7.4	0.0	5.6	-4.91
동 남 아	8.6	1.7	12.1	3.4	48.3	10.3	8.6	5.2	1.7	-4.35
중 남 미	0.0	0.0	0.0	33.3	33.3	33.3	0.0	0.0	0.0	-4.34
중 동	16.1	0.0	12.9	9.7	45.2	6.5	6.5	3.2	0.0	-4.21
아프리카	0.0	0.0	20.0	0.0	40.0	20.0	20.0	0.0	0.0	0.00

###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2분기 중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원화환율 불안정(46.5%),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4.7%) 및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27.5%)가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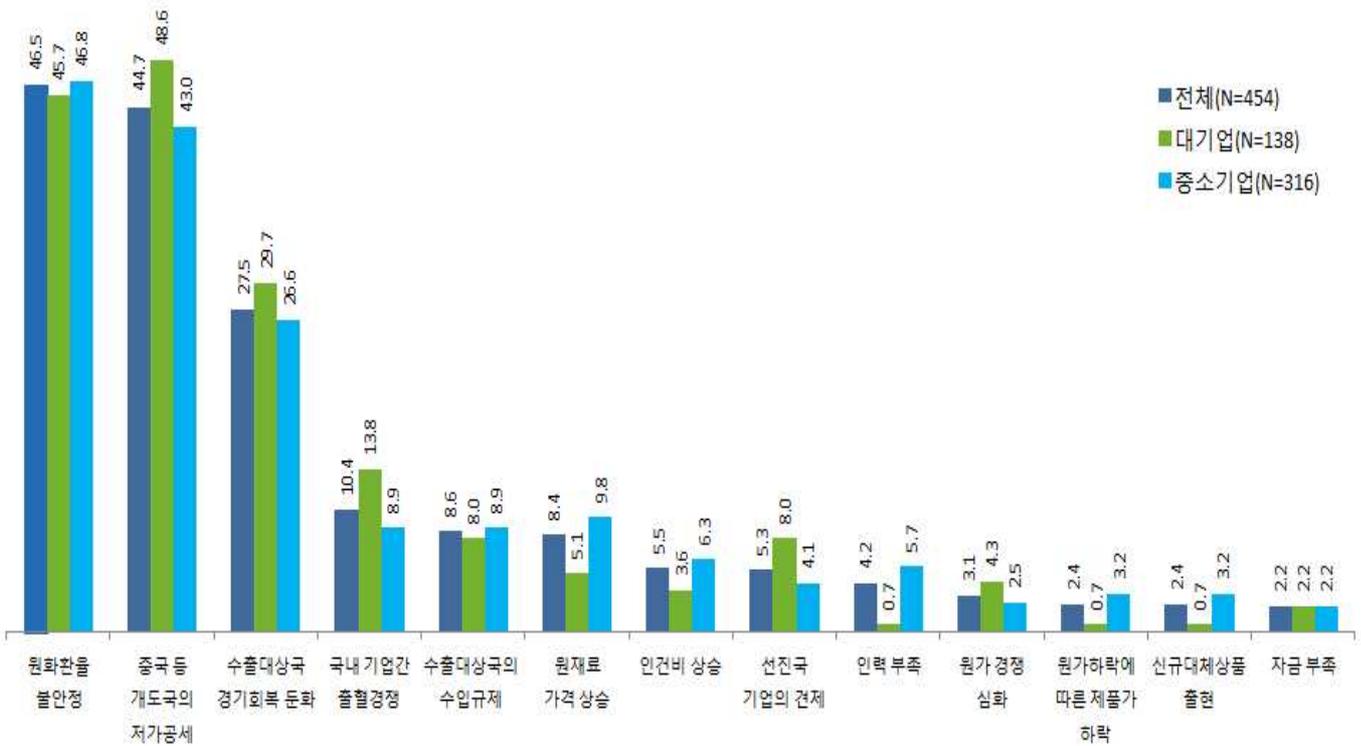
○ 원화환율 불안정(49.4% → 46.5%),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9.4% → 44.7%)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의 비중은 전기보다 감소

- 반면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24.5% → 27.5%)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 비중은 전기대비 다소 증가

○ 대기업은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8.6%)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중소기업은 원화환율 불안정(45.8%)을 가장 많이 응답

## <2015년 2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단위 %)



- 산업별로는 원화환율 불안정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은 자동차(60.9%), 기계류(57.9%), 전기전자(51.4%), 철강 및 비철금속(50.0%) 등에서 높음.
-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를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은 선박(64.7%), 섬유류(51.4%), 전기전자(49.5%) 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 둔화는 플랜트·해외건설(41.7%) 산업에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 2015년 2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단위 %)

구	분	석유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선박	섬유류	플랜트· 해외건설
원화환율 불안정		46.9	50.0	51.4	57.9	60.9	38.2	32.4	22.2
중국 등 개도국의 자가격제		46.9	45.8	49.5	44.2	30.4	64.7	51.4	38.9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		28.1	31.9	30.6	25.3	24.6	35.3	35.1	41.7
원재료 가격 상승		12.5	4.2	7.2	10.5	11.6	5.9	10.8	0.0
국내기업간 출혈경쟁		6.3	11.1	8.1	9.5	5.8	8.8	8.1	22.2
선진국 기업의 견제		4.7	2.8	3.6	7.4	2.9	2.9	5.4	8.3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		12.5	5.6	7.2	6.3	8.7	2.9	13.5	5.6
인건비 상승		3.1	5.6	2.7	2.1	10.1	5.9	10.8	8.3
인력 부족		4.7	2.8	3.6	8.4	5.8	2.9	0.0	2.8
자금 부족		0.0	2.8	1.8	2.1	1.4	2.9	5.4	2.8
수출금 회수에 어려움		0.0	1.4	0.0	1.1	0.0	0.0	0.0	2.8
높은 금융비용		3.1	1.4	0.9	0.0	0.0	0.0	0.0	8.3
높은 물류비용		4.7	1.4	0.0	0.0	2.9	0.0	2.7	0.0

#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 1. 설문 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평가 : 조사 해당 분기
  - 실적전망 : 조사 다음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15년 6월 15일~19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 크기 : 대·중소기업 454개 업체  
(대기업 138개, 중소기업 316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출채산성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평가	
	수출단가	수출단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생산원가	생산원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수출물량	평가지수	수출물량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수출계약	평가지수	수출계약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자금사정	평가지수	자금사정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	

3. 수출 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 모형 개편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10년=100 기준으로 산출되며, 2015년 2분기 이후 수출 선행지수 추정 모형 개편 보완

□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분	변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 OECD,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수출가격 변수	· 실질실효환율
산업별 수주현황	·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 · 반도체 : North America Capital Equipment Book-to-Bill Ratio(SEMI) · 선박 : 해외수요 선박수주액 · 기계 : 해외수요 기계수주액